보이차
www.hongdawon.com
紅茶園 02)744-3311

현대불교

2006 FIFA 독일 월드컵 4강기원
아이 ♥ 딕 아드보카트
찬덕연등 031)792-6288/794-4055

붓다뉴스 동영상 제공 기사 ☎구독신청 02)2004-8211~2 buddhanews.com 불기 2550년 (서기 2006년) 6월 28일(음력 6월 3일) 수요일 (주간) 제 584 호

아기 데리고 갈 절 어디?

영·유아 편의시설 없어 젊은 엄마들 '신행 포기'

저출산시대 포교 사각지대… 타종교 벤치마킹 필요

두살된 딸을 기르는 주부 은현정씨(29 · 서울 중구)는 불자다. 아기를 낳기 전에는 바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사찰에 가곤 했다.

그런데 아기를 낳으면서부터 사찰에 나가는 일을 포기했다. 이유는 단 하나, 법회를 보는동안 딸이 마음껏 놀 수 있는 시설이 사찰 안에 없어서다.

은씨와 같은 처지의 젊은 엄마 불자들이 많다. 도심 대형사찰과 포교당 대부분, 2~5세 유아를 맡기고 마음 편하게 신행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모처럼 법당을 찾아도, 행여 아이들이 보채거나 울까 염려돼 108배를 하거나 정근에 몰두할 수 없다. 잠이 든 아기를 좌복 위에 눕혀 놓고 조심스럽게 기도를 할 때면, 아이 때문에 남에게 방해가 되지 않을까 무척 신경이 쓰인다는 엄마들도 많다.

은현정씨 역시 그렇게 조바심치다가 개운치 않은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몇 번 반복한 끝에 차라리 신행생활을 한동안 쉬어야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은씨는 "짧은 시간만이라도 마음 편하게 신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찰 한 구석에 탁아소나 놀이방이 마련돼 있으면 좋겠다"고 호소한다.

일산 신도시에 사는 새댁 김현자씨(32) 사정도 비슷하다. 김씨는



서울 강남 총지사는 성인들의 법회시간에 법당 옆에 마련된 자성학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따로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요즘은 감자탕 집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에 가도 아기를 맡길 수 있는 놀이방이 마련돼 있고,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도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과 수유방이 따로 있지만 사찰에는 그런 시설이 없어 아기와 함께 사찰 가기가 몹시 불편하고 눈치도 보인다"며 "아이가 부처님 계신 곳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나도 신행생활을 통해 위안을 얻고 싶은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불교계가 최근 저출산 ·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 많은 공약들을 내놓고는 있지만, 정작 여성불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방안을 제시하는 경우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선 사찰의 작은 관심과 배려가 부족해 포교는커녕 기존의 불자들조차 절에 가기를 꺼리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타종교계는 어떨까. 개신교계는 지난 1월부터 중 · 대형교회 중심으로 범기독교 차원의 '교회 울타리 낮추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운동의 핵심은 바로 '젊은 엄마들 마음잡기.'

서울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비롯해 전국의 150개 교회들은 교회 내 유휴공간을 이용해 영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을 개설하고 있다.

광화문 종교교회의 경우 인근에 보육시설을 마련하고 운영위원회를 두는 것은 물론, 영유아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고 직장으로 출근하는 부모들을 위해 교회 주차장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6월 20일 '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30%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영유아보육은 우리사회에서 더 이상 가정 내의 문제가 아니다. 타종교계 역시 저출산이 교회 성장의 정체와 사회적 선교역량 감소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인식하기에 앞장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들을 내놓고 있다.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마련에 염두에 두고 최근 방과후 교실을 사찰내 마련한 서울 금장사 주지 본각 스님은 "교회 내 영유아보육시설에 다니는 아이들은 자라면서 교회 부설 어린이집과 방과후 공부방으로 연결돼 자연스럽게 기독교인이 되기 때문에 이는 하나의 선교전략"이라며 "사찰에서도 하루 빨리 영유아 및 아동 보육시설을 마련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지종이 운영하는 자성학교는 불교계 보육시설 양성방안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다. 총지종은 강남 총지사를 비롯해 전국 34개 사찰 법당 옆에 '자성학교'라는 명칭의 놀이방을 운영하고 있다.

부모들이 일요법회에 참석하는 동안, 젖먹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까지 다양한 연령대 아이들은 3평 남짓한 공간에서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자유롭게 놀며 부모를 기다린다. 총지종의 자성학교는 일요법회가 열리는 시간 동안에만 잠시 운영되며 초등학교 저학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보육과 놀이가 가능한 공간을 마련하고 전담자를 따로 두어 호응을 얻고 있는 것.

젊은 엄마들을 위한 시설 서비스가 없이는 저출산 시대에 새싹 포교도 메마를 수밖에 없다. 하루 바삐 인식전환과 관련 종책의 수립으로 이어져야 할 때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태고종, 비불교행위 뿌리뽑는다 8면

"저출산 · 고령화 해답 찾자"

종교 · 경제계 등 협약체결, 5대 실천운동 선포



종교 · 경제 · 노동계 등 사회단체 지도자들이 6월 20일 저출산 ·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남동우 기자

저출산 ·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를 비롯한 종교계, 경제계, 노동계, 여성 · 시민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가 팔을 걷어붙였다.

저출산 · 고령화대책 연석회의(공동의장 한명숙 국무총리 · 박영숙 한국여성재단 이사장 ·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 · 강신호 전경련 회장)는 6월 20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저출산 · 고령화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체결식'을 개최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한명숙 국무총리 등이 참석한 체결식에서 불교계는 부문별 실천사항을 통해 △생명존중 공동체 운동 △아름다운 인연맺기 운동 △1사찰 1보육시설 건립 △능력개발 · 고용 확대 △효문화 정립 등 5가지 실천운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육아지원시설 확충 △아동양육 지원 강화 △출산과 아동양육에 따른 부담 공동 부담 △출산과 양육 장려 △여성과 고령자 능력개발 지원 강화 △여성과 고령자 고용 확대 △퇴직연금제도 활성화 △요양서비스 기반 구축 △노후생활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사회협약을 실현하기 위해 각계에서 세부계획을 마련, 실행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5대 실천운동은 종단 또는 사찰 단위로 낙태 반대, 임신 · 출산 · 양육에 관한 강좌, 미혼모시설 확대, 입양장려, 가족 교육 프로그램 실시, 문화재 · 생태해설사 양성, 노인시설 확충 등 22대 과제별로 전개된다.

한편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6월 20일 대통령 간담회에 참석해 저출산 · 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해 불교계도 적극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박봉영 · 남동우 기자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24~25면
혜향 스님 구미문수사 주지



시방세계 9면
'반갑다 연우야' 봉사현장



도반의 향기 17면
'스님자장면' 만드는 장기철씨

국제교류 물길 바뀐다 4면
'푼수엄마' 배우 김혜옥 28면

군법당 신축불사 동참 열기 *'후끈 후끈'*

본지 캠페인 '과훈단 호국응봉사' 소개… 두달새 5천만원 모금

어려운 군법당을 돕고자하는 불자들의 마음이 월드컵 열기만큼이나 뜨겁다.

본지가 4월 5일(572호) 24인용 천막을 법당으로 개조해 법회를 보며 신축 법당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과학화 훈련단 호국 응봉사의 사연을 소개하자 동참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불자는 1000만원을 쾌척했다. 30여명의 불자들도 1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금액을 희사했다. 이렇게 후원 통장에 입금된 보시금 외에도 호국응봉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 군법사를 통해 전달된 동참금도 2000만원에 이른다.

군법당 건립을 위해 두달 사이에 5000여만원이 모금된 것은 드문 일. 조계종 군종교구는 "군포교의 활성화를 위해 매진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사기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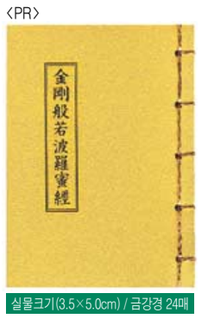
법당이 없어 법회조차 보기 힘들었던 과학화 훈련단 불자들에게는 '희망'이라는 등불이 켜진 셈이다. 편안하게 법회를 볼수 있다는 생각에 호국응봉사 불자 장병들도 들떠있기는 마찬가지다.

호국응봉사 조철호 군법사는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많은 불자들에게 고마울 따름"이라며 "올 가을 법당이 낙성되어 장병들이 편안하게 법회를 보며 군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동참한 불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8면

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PR〉



실물크기(3.5×5.0cm) / 금강경 24매

불경금책 소장용으로
인기리에 보급중 !!!

금강불교예술원에서 금강경, 반야심경, 천수경 등의 불경을 금책으로 제작보급하여 화제다. 99.9% 금으로 제작한 불경금책은 크기가 3.5cm×5.0, 5×7cm으로 휴대가용이하며,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맞춤식 주문제작도 가능하다고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02)722-1850
(용도 : 복장의식, 상량식, 영가천도, 불사)



달마의 氣

www.shmall.net
2006 베스트브랜드 인기상품!

名家인터내셔날

고객상담전화 1588-3278

외출과 여행이 잦아지는 노출의 계절 여름!
그만큼 갖가지 나쁜 기운과 마주칠 기회가 많아집니다.
이제 달마의 기로 자칫 닥쳐올지 모를 나쁜 기운을 미리 예방하세요!

수험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선물!
행운충전

대리점 및 총판모집 1588-3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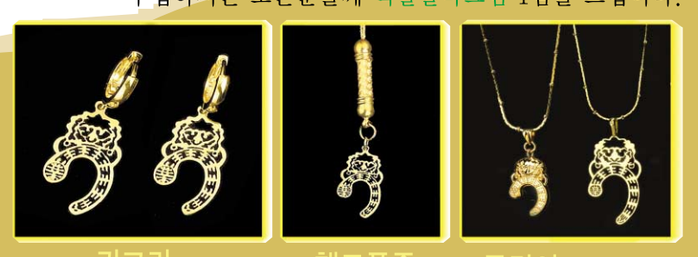
무점포, 소자본으로 고소득 사업하실 분을 모습니다.



예부터 병귀(病鬼)와 사귀(邪鬼)를 물리치는 힘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 달마!
수맥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달마의 기를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걸이와 귀고리, 핸드폰 고리를 몸에 지니는 순간 행운이 찾아옵니다.

호국불교효예종 법진스님 외
여러종단 스님들께서 추천한 인기 상품!!

고객여러분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으로 달마의 氣 14K를
구입하시는 모든분들께 백팔달마그림 1점을 드립니다.



귀고리 핸드폰줄 목걸이 (목걸이줄은 별매)

• 제조원 : 名家인터내셔날 • 판매원 : (주)S.H상사 (주)S.H상사 – 서울시 양천구 목5동 907-14 벽산미라지타워 410호